

'티칭 헬퍼'로 임명합니다

호원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수여식 개최 서은미·류무희·장범환 등 교수 5명

호원대 교수학습개발센터는 2019학년도 티칭 헬퍼(Teaching Helper)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명된 Teaching Helper는 서은미(교양과), 류무희(호텔외식조리학과), 장범환(사이버보안학과), 왕중산(물리치료학과), 한성관(시각디자인학과) 교수다.

티칭 헬퍼는 호원대 교육현장에서 발굴한 티칭리더로서, 교수(teaching)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이고 다양한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체로서 활동하게 된다. 2019학년도 티칭 헬퍼는 자신의 성공적인 교수연락을 공유할 수 있는 교수코칭 활동을 하게 된다.

강희성 총장은 "호원대 교육공동체를 중심으로 유대감과 공감대 형성하여, 협력적인 교수학습문화 확산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티칭 헬퍼에게 부탁의 인사를 전했다.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김은정 교수(유아교육과)는 "티칭 헬퍼 발굴과 같은 교수·학습 혁신 모델의 창출을 통해 우리대학만의 비교과 교육 특성화를 시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호원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는 2학기에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을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 하계방학 중 교수법 연수 과정을 제공하고 과정별 세미나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 /잠은성 기자



호원대 교수학습개발센터는 '2019학년도 티칭 헬퍼(Teaching Helper)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창경찰, 유형업소 유착 의혹 중간관리자 간담회

고창경찰서(서장 박정환) 청문감사실은 예전에 사라진 것으로 일었던 경찰의 '유형업소 유착 의혹' 기사가 연일 방송매체에 회자됨에 따라 중간관리자 간담회를 통해 자정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경찰이 피나는 자기성찰을 통해 국가기관 중 제일 먼저 개혁에 성공한 결과 공평하고 청렴한 경찰로 거듭나고 있는 시점에서 유형업소 유착의혹 언론보도는 조직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한 결과로 이어졌고 조직원들의 자존감 역시 심각하게 상처를 입은 상태이다. 유형업소 유착은 이미 구시대적 악습으로 역사적 유물에서나 찾아보아야 할 정도로 우리의 기억속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일부직원들의 일탈행위 기사는 죽은 망령을 다시 본 듯 한 충격을 받게 한 것이 사실이다.

고창경찰은 이런 분위기를 추스르기 위해 지역사정에 밝고 조직 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간관리자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자정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최은영 팀장은 "조직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중간관리자로서 경찰조직이라는 배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조직원들과 소통하고 솔선수범하여 조직이 바로 서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정환 서장은 "경찰의 임무와 역할이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보니 소수 조직원들의 일탈행위가 조직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짐을 명심하고 국민을 존중하고 보호해야하는 뜻뜻하고 담당관 대한민국 경찰임을 잊지 말 것"을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자축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조남출)는 지난 2016년에 착공한 수동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지난해 12월에 마무리를 한후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자축하는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수동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감독한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이형준 주임이 마을주민과 추진위원으로부터 지원발전과 경제활성화의 밑바탕이 될 "순창 나무터전역 커뮤니티센터"성공적인 추진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하게 되었다.

이형준 주임은 담당직원으로써 많은바 업무를 한 것 뿐인데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노고를 인정받는 것 같아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다른 마을사업 또한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영원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201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연수 실시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항근)은 지난달 29일 관내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업무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201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전주 관내 중학교 38교 학교생활기록부 업무 담당교사들로 참석한 약 40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체계 강화기능 개선사항, 2019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교육했다. 특히 본인토의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업무 담당교사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동안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체계 강화기능 개선 사항에서 올해 크게 달라진 점으로는 첫째, 학교생활기록부 인증 절차가 2단계로 설정되어지게 되며, 둘째, 학교생활기록부 권한 관리가 강화되고, 셋째, 졸업 후 5년 간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에 대한 수정이력이 보관돼 신뢰도와 공정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더욱 부응하게 됐다. /잠은성 기자

남원경찰, 춘향테마파크 실종예방 현장점검

남원경찰서는 최근 춘향테마파크 등 코드아담 대상시설 5개소에 대해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실종예방지침(일명 코드아담)이란 다중이용시설과 대규모 행사에서 실종아동 등이 발생시 1차적으로 관리자 체가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 초기충격 대응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현재 남원에는 춘향테마파크, 광한루원 등 총 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날 점검에서는 다가오는 춘향제 대비 중요 행사장의 특성을 고려한 자체지침 마련 여부, 각 행사장 직원별 임무 사전지침 여부, 안내방송·전광판 등 전파시스템 정비 여부 등 불리는 인파에 대비해 맞춤형 점검을 실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완주스포츠클럽·완주 봉서초등학교, 스포츠 지원 업무협약

완주스포츠클럽과 완주 봉서초등학교가 스포츠 교육지원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30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이날 봉서초에서 고영호 완주스포츠클럽 운영위원장과 이한규 봉서초 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재학생에 대한 스포츠 교육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과 지도자 파견을 비롯해 교직원에 대한 혜택 제공이 가능해졌다.

또 스포츠클럽은 프로그램 홍보와 장소(공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한규 교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 공공스포츠클럽의 선진화 된 스포츠 프로그램 및 우수한 스포츠분야의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영호 운영위원장은 "학교와 공공스포츠클럽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상호 윈윈하는 우수 체육활동 선진모델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공공스포츠클럽은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의 연계 발전을 목적으로 정부의 체육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부각돼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잠은성 기자

익산경찰 여성청소년과, 어린이 맞춤형 다채로운 행사 준비 중

익산경찰서(서장 박현수)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오는 5월 5일 제97회 어린이 날을 맞아 큰잔치 행사가 열리는 원광대학교 소운동장 전용 부스를 설치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어린이 눈 높이에 맞는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5월 청소년, 어린이의 달이면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행사 프로그램을 사전 준비 당일 어린이의 마음에 맞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것이다.

당일 익산서 여청과에서는 경찰제복 착용 체험, 순찰차 또는 싸이카 시승, 포드존운영, 실종 예방을 위한 사전 지문등록, 부채, 양말, 헝겊 등 어린이 맞춤형 홍보물 배부는 물론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캠퍼스 폴리스와 고등학생 모임인 드림폴리스 단원들이 함께 나와 행사장 내 학교폭력 예방 도보캠페인 및 선 도보호 활동도 준비되어 있고 여성 청소년에게 소속 직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현장 1:1 고민 상담의 시간도 마련 진행될 계획이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익산=장인천 기자

남원소방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 전통사찰 화재안전특별조사

남원소방서는 부처님 오신 날(음 4월 8일)을 맞아 봉축행사에 따른 연등, 등, 철야기도회 등으로 촛불, 전기, 가스 등 화재사용 증가 등에 따른 전통사찰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남원시, 순창군 관내 중요사찰과 광한루 외 1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점검은 ▲사찰 내 소방, 가스, 전기 등 안전시설 점검 및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촛불·연등과 같은 화재취약요인 제거 및 화재안전관리 지도 등이며, 산간·오지 등 소방차량 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자체 대응체계도 강구할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동리국악당서 성인지 감수성 인형극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이운애)는 지난 30일 고창군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동리국악당에서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인형극'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고창군과의 협업으로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해 문화 소외 지역에 한우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공연 극단은 센터에서 문화구연지도사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들로 구성된 '은고을아리랑'이며, 내용은 충북 단양 지역에 전승되는 '죽령산신당신화'를 각색한 '다지야라 들지야라 할머니' 이야기로 여성이 보호받아야 하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특정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자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운애 센터장은 "아이들에게는 인형극이 일방적인 설명이나 강의보다 전달 효과가 훨씬 커서 자연스럽게 성인지 감수성이 향상될 것이며, 실질적인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센터가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잠은성 기자

전북대 이석재 교수, 대한금속학회 춘계학술대회 신진학술상

전북대학교 이석재 교수(공대 신소재공학부 금속시스템공학전공·사진)가 최근 열린 대한금속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신진학술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금속 및 재료 관련 우수 논문을 다년간 발표하였거나 우수한 저서를 집필해 금속 및 재료공학 발전에 높은 기여를 한 40세 미만의 신진 연구자에게 수여한다. 이 교수는 지난 10여 년 동안 80여 편의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하는 등 철강 소재의 열처리 모델링 분야에서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한 업적을 인정받았다.

이 교수는 미국 콜로라도광업대학(Colorado School of Mines) 철강센터 연구원과 포스텍 철강대학원에서 연구조교수를 거쳐 2012년 전북대에 부임했다.

이후 활발한 연구와 학부 교육 및 대학원생 지도에 매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원 창업 기업인 포스(POS)를 통해 국내 철강 및 금속 소재 관련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잠은성 기자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지리산국립공원 협치위원회 개최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소장 조점현) 최근 지리산국립공원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의견 수렴을 통해 공원관리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지리산국립공원 협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치위원회에는 운봉지역 배래봉 관리 교도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남원시와 지역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18명의 위원들이 참여하였으며, 참석 위원들은 효율적인 공원관리방안, 생태계 건강성증진, 안전한 탐방환경조성 지역사회 상생협력, 선진화된 국립공원 탐방인프라 조성 등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

김철순 자원보전과장은 "논의된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해 국립공원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